

8면



\$5억 교역로가 막혔다 - 태국-캄보디아 분쟁이 만든 경제 상처

2025년 5월 재발화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12월 27일 첫 휴전 합의 이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2026년 8월 현재까지 양국 경제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사망자 100명 이상·이재민 64만명이라는 인도적 피해 외에 경제 피해는 수치로 확인된 것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한다. ...

3면



'HQ1/HQ2헤리티지 관광열차'가 바꾸는 중부 베트남

8월 28일 동호지역, VNR(베트남 국철)이 버튼을 눌렀다. "풍나-후에 고도: 윈터스로의 여정·세계유산지구" 테마를 내건 HQ1/HQ2 편성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9월 2일 독립기념일에는 공식 운행을 선언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에 황성 복합 지구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

9면



연남동에서 시작해 한국 23개점 콩카페가 보여준 것과 숨긴 것

2018년 7월 30일, 서울 연남동 골목에 낯선 카페가 문을 열었다. 녹슨 철제 가구, 사회주의 포스터 감성, 베트남어 사인, 그리고 메뉴에 코코넛 커피 하나. 베트남 카페 브랜드 콩카페(Cộng Cà Phê)의 세계 첫 해외 직영점이었다. 한국 소비자들은 낯설고 신기한 이 공간에 줄을 섰다. ...

12면



사장님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금융은 신한이
책임
지겠습니다



실시간 입금안내

계좌 입금 즉시
스피커로 입금 내용 안내



사업용 계좌

사업용 입출금 계좌에
최대 연 4.5% 이자 제공



스마트 결제 POS

한국어 지원 POS 제공
및 최저 카드 수수료 혜택



매장관리 서비스

여러 매장을 SOL App에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



SOL 앱 다운로드
QR 스캔



신한금융그룹 in Vietnam

Shinhan Bank Shinhan Finance Shinhan Securities Shinhan Life Shinhan DS

\$5억 교역로가 막혔다 - 태국-캄보디아 분쟁이 만든 경제 상처

64만명 이재민 · 90만명 노동자 귀국 · \$30억 송금 소멸 · 캄보디아 성장률 3차 하향



2025년 5월 재발화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12월 27일 첫 휴전 합의 이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2026년 8월 현재까지 양국 경제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사망자 100명 이상·이재민 64만명이라는 인도적 피해 외에 경제 피해는 수치로 확인된 것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한다. 지난 8월 28일 캄보디아에서 발사된 BM-21 로켓이 태국 주유소를 관통한 것이 보여주듯 분쟁은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피해 규모를 데이터로 해부하고 해법을 살펴본다.

▶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경제 피해 집계 (2025.5~2026.8)

피해 항목	캄보디아	태국	출처
교역 손실	대태국 수출 -13.5% 분기 육로 교역 \$12억 소멸 (분기 평균 \$12억 → 0)	대캄 교역 -40%+ Trat·Chanthaburi 빌바트 30억 이상 손실	Fulcrum· ISEAS 2026.04
관광 피해	2025년 관광 수입 -\$8억 5,500만 방문객 -40%(2025.07 기준) 태국 경유 앙코르 투어 붕괴	Trat 호텔 점유율 100%→20% 코창·코콧 예약 전면 취소	The Diplomat Khao Sod 2025
노동자 귀국 ·송금 소멸	캄 노동자 90만명 귀국 \$30억 연간 송금 소멸 가구 소득 -34% 급감	태국 건설·어업·농업 노동력 부족 급속 악화 임금 상승 압력	UN 보고서 국가 태국 2025.12
GDP 충격	2026년 성장률 4.1% (1월 5.0%→5월 4.2%→현재) Mekong SC: 2025년 3%	UTCC: 2026 GDP -0.74% 수축 전망 관광 GDP 기여 -5%	캄보디아 재정부 UTCC
에너지 · 공급망	태국산 연료 공급 차단 캄보디아 인플레이션 급등 베트남·라오스 우회 비용 +25~40%	가스전(\$5조 바트) 개발 무기한 중단 에너지 협력 붕괴	Nation Thailand 2025.12
미해결 현안	8월 28일 BM-21 로켓 태국 주유소 관통 국경 재산 피해 보상 없음	남부 3개 주 51개 방화(8.22) 병행 안보 불안 지속	Mekong Memo 2026.08.28

① 캄보디아의 상처 -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유엔(UN) 보고서가 확인한 피해는 단순한 경기 부진을 넘어선다. 64만4,589명 이재민·90만 노동자 귀국·연간 \$30억 송금 소멸이라는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가해졌다. 특히 송금 소멸의 파괴력이 크다. 캄보디아 농촌 가계는 태국 출가 자녀의 송금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을 상환해왔다. 이 돈줄이 끊기자 대출 상환 능력을 잃은 가계들이 토지를 헐값에 팔아 빚을 갚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UN은 이를 "부의 영구 손실"이라고 표현했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타격이 누적됐다. 2026년 성장률 전망이 세 차례 하향(5.0%→4.2%→4.1%)되는 동안 태국 경유 앙코르 관광 코스 붕괴로 2025년 관광 수입이 \$8억5,500만 감소했다. ISEAS는 캄보디아가 중국·베트남으로 빠르게 무역 축을 전환한 덕에 충격이 예상보다 작았다고 분석했지만, 국경 7개 성의 구조적 경제 낙후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

② 태국의 상처 - 예상치 못한 역풍

태국은 "이긴 쪽"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역풍은 만만치 않았다. Trat주 9일간 피해가 10억 바트(\$3,200만)를 넘었고 코창·코콧 호텔 점유율이 100%에서 20%로 폭락했다. 가장 심각한 충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90만 캄보디아 노동자의 귀국이었다. 태국 건설·어업·농업·식품가공 분야에서 즉각적인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고 임금이 올랐다. UTCC(태국 상공회의소대학)는 2026년 태국 GDP가 -0.74% 수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조 바트 규모의 국경 해상 가스전 개발도 무기한 중단됐다. 태국이 국경 분쟁을 택하면서 함께 잃어버린 것이 에너지 협력이라는 역설이다.

③ 해법 - 구조적 해결 없이는 경제 회복도 없다

오늘(8.28) BM-21 로켓이 태국 주유소를 관통한 것이 보여주듯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 회복은 제한적이다. UNCLOS 패널(의장 호주 카트리나 쿠퍼)이 9월 첫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권고안 도출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단기 해법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 캄보디아 고속도로의 태국 차량 통과 허용처럼 부분적 교역 재개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이다. 캄보디아가 이미 이 조치를 발표했으며 소규모 교역 복원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둘째, 마이크로파이낸스 위기 대응이다. UN이 권고한 대로 코뮌(commune) 단위 직업훈련과 채무 재구조화를 통해 토지 강제 매각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태국의 노동력 공백을 채우는 새로운 채널 확보다. 미얀마·라오스·베트남 이주 노동자 유입 경로를 빠르게 넓혀 공급망 마비를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 단기 처방이다.

중장기적으로 두 나라는 2013년에 서명한 가스전 공동 개발 협정의 틀을 되살려야 한다. 국경 해상 \$5조 바트 규모 가스전은 두 나라가 협력할 경제적 유인으로 지금도 유효하다. 에너지 협력이 복원되면 국경 교역 재개와 노동 협력의 법적 기반도 함께 세울 수 있다. ASEAN 중재 또는 UNCLOS 절차와 병행한 양자 직접 협상이 가장 빠른 경로다. ISEAS는 캄보디아가 지난 10년간 중국·베트남으로 무역 다변화를 이룬 것이 이번 충격의 완충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다변화를 더 가속하는 것이 캄보디아의 독립적 방어막이 된다.

★ 편집부 평가

태국-캄보디아 분쟁의 경제 피해는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말하기 어렵다. 두 나라 모두 잃었다. 다만 잃은 방식이 다르다. 캄보디아는 수십만 가계의 토지와 소득을 잃었고, 태국은 노동력과 에너지 기회를 잃었다. 분쟁이 계속될수록 손실은 비대칭적으로 캄보디아 쪽에 더 크게 쌓인다. UNCLOS 절차와 부분적 교역 재개가 병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유일한 긍정 신호다.

[출처: ISEAS "Cambodia Economy Before and After Border Conflict" (2026.05.12) • Fulcrum "Economic Fallout Thailand-Cambodia" (2026.04.24) • UN 보고서 Asian News Network (2026) • The Diplomat "Cambodia Economic Costs" (2025.10.14) • Nation Thailand "Economic War \$5B Trade" (2025.12.10) • Khao Sod "Trat Economy 1B Baht Loss" (2025.12.17) • Mekong Strategic Capital 분석 (2025.08) • UTCC GDP -0.74% 전망 • Mekong Memo Thailand (2026.08.28)]

50만 달러가 은행에 잠들어 있다 - 베트남 자산관리 시장의 역설

BCG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26, 연 9% 부 성장 · 투자 상품 빈약 · 서비스 공백이 만드는 기회

호찌민시 물류 회사 이사 응우옌씨는 몇 년 전 부유층 문턱을 넘었다. 자산이 50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그 돈의 대부분이 은행 예금 계좌에 들어있다. 연 4~5% 이자를 받는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고 싶지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지 모른다. 은행 PB(프라이빗 बैं킹) 직원은 자사 예금 상품을 권유할 뿐이다. 독립 자산관리사(IFA)는 베트남에 거의 없다. 이것이 2026년 베트남 자산관리 시장의 실제 모습이다. BCG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26이 이 현실을 수치로 확인했다.



▶ 베트남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시장 현황과 구조적 공백

항목	베트남 현황	글로벌 비교 · 의미
부유층 금융자산 성장률	연 9% (2026~2030 전망) BCG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26 세계 상위 20개 이머징 마켓	중국 7% · 인도 12% 베트남 동남아 최고 수준
HNW (100만달러+ 자산가) 수	2025년 약 19,000~22,000명 2030년 3만명+ 예상	싱가포르 25만명 대비 아직 초기 단계
HNWI 금융자산 총액	\$730억+ (2025년 추산) 2030년 \$1,100억+ 예상	GDP 대비 약 14% 태국(29%) · 말레이시아 (42%) 대비 낮음
현재 자산 배분	은행 예금 55~60% 집중 부동산 25~30% 주식 · 채권 · 펀드 10% 미만	성숙 시장 예금 비중 20~30% 부동산 의존도가 너무 높음
자산관리 서비스 공급 현황	은행 PB 채널 주도(자사 상품 중심) 독립 자산관리사(IFA) 거의 없음 패밀리오피스 3~5개(초기)	싱가포르 70개+ 패밀리오피스 홍콩 200개+ — 격차 극심
VIFC 국제금융센터	2025년 12월 설립령 325/2025/ND-CP 2026년 인프라 구축 본격화 자산관리 외국기업 진입 허용	싱가포르식 금융허브 복제 의도 법적 프레임워크 2026년 완성

① 왜 지금 베트남 자산관리인가 - 3가지 구조적 이유

베트남 자산관리 시장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부의 급격한 축적이다. VN-Index가 12개월간 46.62% 상승하고 FDI 붐이 이어지면서 기업가·주식 투자자·외국계 기업 고위 임원들이 빠르게 부유층 문턱을 넘고 있다. BCG 보고서가 연 9% 금융자산 성장이라고 밝힌 이 숫자의 의미는 단순하다. 10만 달러 자산가가 8년이면 20만 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겨난다.

두 번째는 VIFC(호찌민 국제금융센터)의 출범이다. 2025년 12월 총리 결의 325/2026/ND-CP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VIFC는 외국 자산관리 기업의 베트남 진입을 허용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포함한다. VIR(베트남인베스트먼트리뷰)은 "VIFC의 영향은 금융산업을 넘어 여러 부문으로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는 FTSE 이머징 편입이다. 9월 21일 효력 발생으로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베트남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구조가 생겼다. 이것은 베트남 자본시장 참여자들

의 투자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유층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② 서비스 공백의 실체 - 은행 PB가 자산관리가 아닌 이유

BCG 보고서의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이것이다. "현지의 상품 공급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투자 상품 선택지가 빈약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제한적이며 서비스 모델이 실질적 자산관리보다 리테일 बैं킹에 가깝다." 베트남 은행들의 PB 서비스는 구조적으로 자사 상품을 파는 인센티브 구조를 갖는다. 독립적 조언이 어렵다. 반면 싱가포르에는 MAS(통화청) 규제를 받는 독립 재무 어드바이저가 수천 명 활동한다. 베트남에 공인 독립 자산관리사(IFA) 라이선스 체계 자체가 없다. 특히 공백이 큰 분야는 세 가지다. 첫째,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베트남 내에서 합법적으로 해외 ETF·채권·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이 극히 제한적이다. 둘째, 세대 간 자산 이전(상속 계획)이다. 베트남 1세대 기업가들이 60~70대에 진입하면서 승계 계획 수요가 생겼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없다. 셋째, 트러스트·패밀리오피스 구조다. 2026년 기준 베트남에 공식적인 패밀리오피스가 3~5개에 불과하다.

③ 한국 기업에게 열린 경로 - 어디서 진입할 것인가

베트남 자산관리 시장에 한국 금융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VIFC를 통한 직접 라이선스다. 호찌민 VIFC 설립 법령이 외국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의 현지 법인 설립을 허용한다.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같은 기관이 베트남 현지 자산운용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고액자산가(HNW) 대상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 됐다. 두 번째는 베트남 증권사·은행과의 합작이다. SSI·VND·TCBS 등 베트남 선도 증권사들이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하고 싶어하지만 서비스 역량이 부족하다. 한국 자산관리 노하우와 베트남 현지 고객 기반을 결합하는 합작이 현실적 진입 경로다. 세 번째는 디지털 웰스 플랫폼이다. 한국의 토스·카카오페이 모델처럼 앱 기반 투자 일임·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베트남에는 아직 없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MZ세대가 금융 디지털화에 익숙한 베트남에서 이 공백은 크다.

★ 편집부 평가

베트남 자산관리 시장은 제조 · 반도체 ·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지만 BCG가 "세계 상위 20개 이머징 마켓 중 최대 미개척 기회"라고 명시한 분야다. 부가 빠르게 쌓이고 있지만 그 부를 운용할 전문 서비스 인프라가 없다는 역설이 기회를 만든다. VIFC 법령 · FTSE 편입 · 1세대 기업가 승계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이 시장의 문을 열고 있다.

FTSE 지수 편입 조율 기간 마감 · 다음 분수령은 9월 15일

국제 금값 강세에 베트남 국내 금값도 동반 상승

① 베트남 증시 주간 흐름-연휴 후 충격, 하루 만에 회복

이번 주는 5일 연휴 이후 처음 열리는 장이었다. 결과는 흔들렸다가 이틀 만에 제 자리를 찾는 흐름이었다.

지난 8월 28일 마지막 거래일에 베트남 증시 대표 지수인 VN-Index는 1,832포인트로 마감했다. 연휴 전 7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올해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우며 1,800포인트를 돌파한 상태였다. 8월 한 달 전체로도 5.55% 올랐다. 그런데 5일 연휴가 끝나고 9월 3일(목) 장이 다시 열리자마자 -0.57% 하락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연휴 전에 많이 오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의 물량이 쏟아졌다. 둘째,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인사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글로벌 증시 전반에 불안감이 생겼다.

그러나 이틀째인 9월 4일(금)에 바로 반등이 나왔다. 장중 한때 1,862포인트까지 오르며 +1% 안팎의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날 미국 중앙은행의 다른 인사인 월러 이사가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반전의 계기가 됐다. 미국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기대가 살아나면 베트남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이 빠져나갈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증권 전문가들의 9월 전망을 보면 KBS증권은 "1,800~1,870포인트 구간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했다. SHS와 PHS는 1,850~1,900포인트를 당분간 목표로 제시했다.

▶ 이번 주(9.1~9.4) 베트남 금융 · 증시 핵심 지표

항목	이번 주 수치	의미 · 설명
VN-Index 주간 흐름	8.28(연휴 전): 1,832포인트 9.3(재개 첫날): 1,822포인트 (-0.57%) 9.4(이틀째): 장중 1,862포인트까지 반등	연휴 후 차익 실현 하락을 하루 만에 회복 9월 목표: 1,850~1,900포인트
외국인 투자자 매매 동향	8.28 마지막 거래일: 외국인 순매수 VND 3,350억 (이틀 연속 순매수)	올해 누적으로는 외국인이 35억달러(한화약 4조7,500억원) 순매도했지만 이번주 방향이 바뀌기 시작
FTSE 지수 편입 핵심 일정	9.4(오늘): 조율 기간 마감 9.15: 최종 편입 내역 발표 9.21: 실제 효력 발생 (D-17일)	세계 주요 지수 운영 기관 FTSE 러셀이 베트남을 신흥시장으로 공식 인정하는 날
원화 환율	9.4 기준 1달러=1,356.59원 (장중 1,355.78원까지 내려감) 연초 1,559원 대비 13.0% 원화 강세	2026년 연중 원화 최강 기록 베트남 투자 · 송금 시 연초 대비 비용 13% 절감
국내 금 시세 (SJC 기준)	9.4 기준 1돈당 149만1,000동 (전날 대비 VND 70만 상승) 일부 금 제품은 150만동 넘어섬	국제 금값이 온스당 약 4,473달러 달러 약세에 금값 강세
8월 월간 성과	VN-Index 8월 한 달 +5.55% 전월 말 대비 96포인트 이상 상승 1,800포인트 지지선 안착	9주 연속 주간 상승 달성 2026년 누적 +7.39%

② FTSE 지수 편입-이번주가 왜 중요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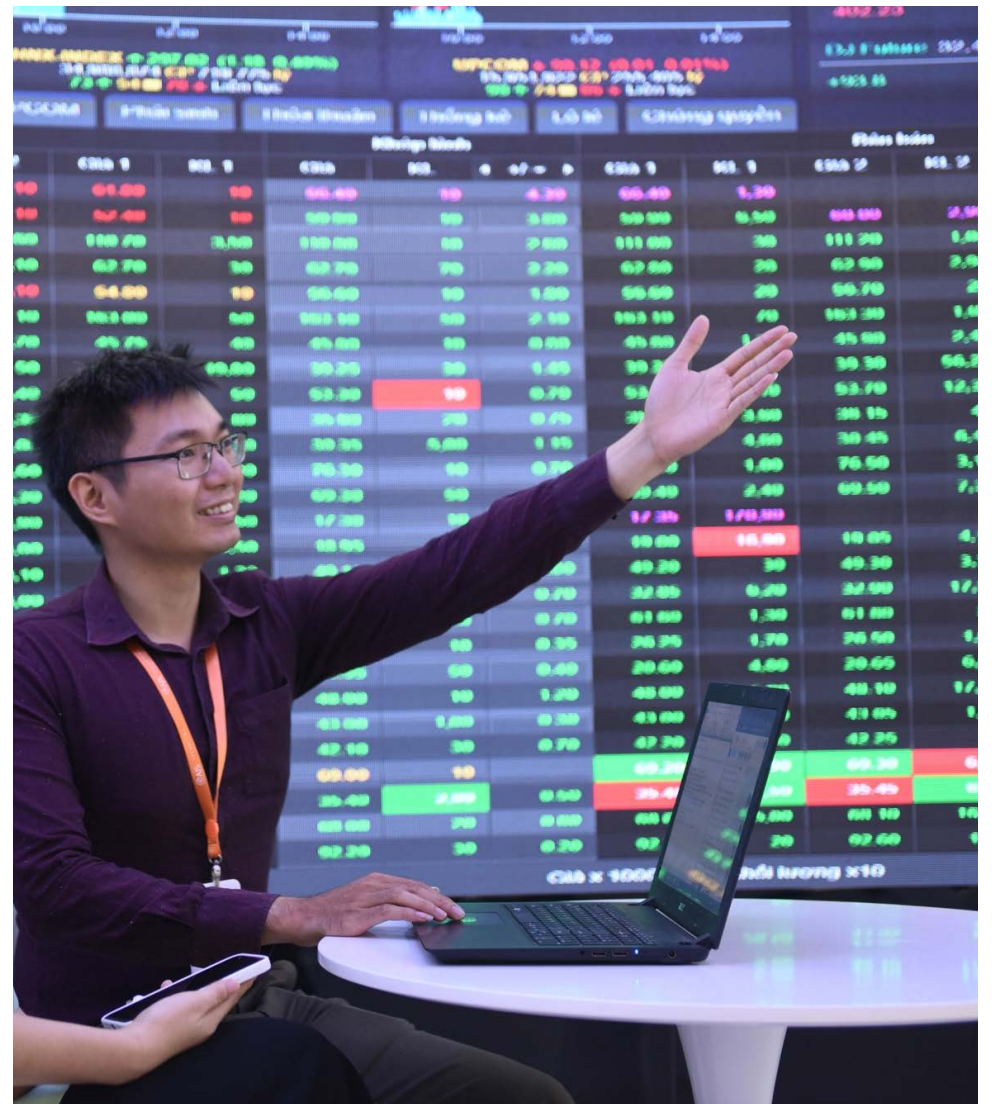
FTSE 러셀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 산출 기관 중 하나다. 이 기관이 만드는 지수를 기준으로 전 세계 수천 개의 펀드들이 어느 나라 주식을 얼마나 살지를 결정한다. 베트남이 8월 21일 이 지수의 신흥시장 등급으로 올라선 뒤,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조율 기간"이 운영됐다. 이 기간에 지수를 따르는 펀드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편입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오늘(9월 4일) 이 조율 기간이 공식 마감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7개 베트남 기업의 지수 편입이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는 뜻이다. 다음 단계는 9월 15일이다. 최종 편입 명단과 각 기업의 비중이 공식 발표된다. 그리고 9월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실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부터 FTSE 러셀 지수를 따르는 전 세계 펀드들이 베트남 주식을 사야 한다. 증권사 SSI리서치는 9월 21일 첫 번째 단계에서 약 1억4,500만 달러(한화 약 1,970억원)가 베트남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총 14억5,000만 달러(한화 약 1조9,700억원)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이 있다. 또 다른 세계적인 지수 산출 기관인 MSCI도 베트남의 신흥시장 편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MSCI는 일부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외국인 보유 한도)가 딱 차 있는 문제를 우려하며 아직 유보 입장이다. 전체 베트남 주식 시장의 10분의 1 이상이 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MSCI 편입이라는 또 한 번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③ 원화 최강 · 금값 상승-두 자산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번 주 원화와 금값이 동시에 강세를 보인 데는 같은 배경이 있다. 미국 달러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월 4일 기준 1달러에 1,356.59원으로 올해 초(1,559원)보다 무려 13%나 원화가 강해졌다. 장중 한때는 1,355.78원까지 내려가 2026년 연중 최강 기록을 세웠다. 미국 달러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한국의 수출이 잘되고 있다. 8월 첫 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고 반도체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오른다. 다음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주주에게 큰 규모의 배당을 계획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더 사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달러 수요가 줄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약 4,473달러 수준을 유지하면서 베트남 국내 금값도 덩달아 올랐다. 9월 4일 기준 SJC 금 1돈이 매도 기준 149만1,000동까지 올랐고 일부 금 제품은 150만동을 넘어섰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금은 대표적인 저축 수단이라 국제 금값 변화가 생활과 바로 연결된다.

④ 다음 주 핵심 일정

- 9월 7일 (월) 베트남 증시 재개·미국 8월 고용보고서 결과 반영
- 9월 9일 (수)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 미국 금리 방향 기늙
- 9월 15일 (월) FTSE 러셀 최종 편입 내역 공식 발표
- 9월 16~17일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 회의
- 9월 21일 (일) FTSE 지수 편입 실제 효력 발생 — 전 세계 펀드 베트남 주식 매수

★ 편집부 평가

이번 주는 5일 연휴 후 첫 거래였다. 하루 하락 후 하루 반등이라는 패턴은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9월 21일 FTSE 러셀 지수 편입 효력 발생을 향해 가는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다. 원화가 연중 최강을 기록한 지금, 베트남에 관심이 있는 한국 투자자 · 교민들에게는 달러 환전 비용이 연중 가장 낮은 시점이라는 점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출처: VietnamNews "VN-Index posts longest winning streak of 2026" (2026.08.28) · TradingEconomics VN-Index 9.3 1,822포인트 · Sunday Guardian Live VNI 반등 보도 (2026.09.04) · SGGP "Vietnam stocks eye 1,900 as FTSE takes center stage" (2026.09.04) · poundsterlinglive.com USD/KRW 1,356.59 원 (2026.09.04) · Sunday Guardian Live "Gold Price Vietnam September 4" (2026.09.04) · SSI Research 자금 유입 추산]

**르네상스
에서
인상주의
까지**

**14세기부터 19세기 명화
숲속의 야외오픈 프로젝트**

Open . 2026. October. 01

2027. October. 01

SAFAMA 세계명화 대전

서양 미술사 600년 레플리카 전을 엿니다

사파마 힐링캠프 , Tel 0924 836 445, Website : safamacamp.com

주소 : Hamlet 4, Toc Tien Commune, Phu My Town, BRVT



사파마 힐링캠프

SAFAMA HEALING CAMP

Danh sách các trường phái hội họa triển lãm tranh sao chép danh họa
힐링캠프 명화 레플리카 화풍별 목록

			YEARS	QUANTITY	PERSON
회화 양식	ARTISTIC STYLE IN PAINTING	PHONG CÁCH HỘI HỌA	제작년도	작품 수	화가 인수
초기르네상스	EARLY RENAISSANCE	PHỤC HƯNG SƠ KỲ	1400	14	12
르네상스	RENAISSANCE	PHỤC HƯNG	1500	20	9
매너리즘	MANERISM	CHỦ NGHĨA CÁCH TÂN	1550	4	3
바로크	BAROQUE	BAROQUE	1600	15	8
로코코	ROCOCO	ROCOCO	1700	12	3
고전주의	NEOCLASSICISM	CHỦ NGHĨA TÂN CỔ ĐIỂN	1750	10	2
낭만주의	ROMANTICISM	CHỦ NGHĨA LÃNG MẠN	1800	13	7
사실주의	REALISM	CHỦ NGHĨA HIỆN THỰC	1850	23	9
인상주의	IMPRESSIONISM	CHỦ NGHĨA ẢN TƯỢNG	1900	116	16
입체파 현대미술	MODERN, CONTEMPORARY ART	NGHỆ THUẬT HIỆN ĐẠI, ĐƯƠNG ĐẠI	2000	11	3
				238 장	72 명

Danh sách họa sĩ triển lãm tranh sao chép danh họa

힐링캠프 명화 레플리카 (복제) 전시전 작가 목록

TÊN HỌA SĨ	TRANH	TÊN HỌA SĨ	TRANH	TÊN HỌA SĨ	TRANH
Adolphe William Bouguereau	1	Hans Holbein the Younger	1	Paolo Veronese	2
Agnolo Bronzino	2	Henri Rousseau	1	Park Soo-keon	1
Albrecht Durer	1	Ilya Yefimovich Rep	1	Parmigianino	1
Alfred Sisley	2	Jacopo da Pontormo	1	Paul Cézanne	3
Ambrogio Lorenzetti	1	Hieronymus Bosch	2	Paul Gauguin	7
Amedeo Modigliani	1	Jacques-Louis David	7	Peter Paul Rubens	1
Andrea Mantegna	1	Jan van Eyck	1	Pierre- Auguste Renoir	15
Camille Pissaro	1	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2	Pieter Bruegel the Elder	4
Caspar David Friedrich	2	Jean Baptiste Simeon Chardin	1	Pole Cezanne	1
Claude Lorrain	1	Jean- François Millet	14	Raffaello Sanzio	1
Claude Monet	38	Jean-Antoine Watteau	2	Rembrandt van Rijn	5
Diego Velázquez	1	Jean-Honoré Fragonard	3	Rosso Fiorentino	1
Edgar Degas	2	Johannes Vermeer	3	Salvador Dalí	1
Edouard Manet	1	John Constable	2	Sanzio Raffaello	1
Edvard Munch	2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	Sandro Botticelli	2
El Greco	3	Le Carvaggio	2	Simone Martini	1
Eugène Delacroix	3	Katsushika Hokusai	1	Théodore Géricault	2
Francisco Goya	1	Leonardo da Vinci	3	Tintoretto	2
Francois Boucher	4	Limbourg brothers	1	Tommaso di ser Giovanni Masaccio	2
Georges Seurat	2	Mary Cassatt	1	Unknown	1
Giotto di Bondone	1	Matthias Grunewald	1	Vecellio Tiziano	2
Giuseppe Arcimboldo	2	Michelangelo Buonarroti	2	Vincent van Gogh	53
Gustav Klimt	2	Narcisse Virgilio Díaz de la Peña	1	Willem Claesz Heda	1
Gustave Caillebotte	1	Nicolas Poussin	2	William Hogarth	1
Gustave Courbet	2	Pablo Picasso	2	Winslow Homer	1
Henri Matisse	2		58		112
	80				250

점유율 70%의 국내 브랜드, 신뢰도 3:1 우위 점하는 외국 브랜드 \$17억 시장에서 벌어지는 진짜 경쟁



숫자만 보면 베트남 국내 브랜드의 압승이다.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시장에서 국내산 점유율이 70%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도시 소비자들에게 물어보면 "외국 브랜드가 국내보다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이 3대 1로 높다. 70%의 국내 점유율은 가격으로 지방 대중 시장을 잡고 있지만, 품질 신뢰도로 이긴 것은 아니다. 2025년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위조품·과장 광고 스캔들로 홍역을 치렀다. 그 정화의 해가 지나고 2026년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베트남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더라도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찾기 시작했다.

이 "이 제품은 정부가 검증했다"는 메시지를 준다. 2025년 베트남 국내 보조식품 스캔들(허위 성분 표시·과장 효능 광고)이 이 격차를 더 벌렸다. 베트남 기능성식품협회(VAFF) 부회장 레반주옌은 "2025년은 정화의 해였고 신뢰받는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 브랜드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롱쩌우·파마시티 입점 비용과 쇼피몰 인증 절차가 만만치 않다. Asia Pro Distribution의 분석이 날카롭다. "베트남 오메가-3 시장이 2025년 22% 성장하는 동안 올바른 베트남어 상품 설명없이 쇼피몰 반 등록만 한 브랜드는 아무것도 팔리지 않았다." 제품보다 유통 설계가 성패를 갈랐다는 증언이다.

② 국내 브랜드의 반격 - 70% 점유율의 진짜 의미

국내 브랜드 70% 점유율은 숫자의 함정이 있다. 이 70%의 대부분은 지방 대중 시장이다. 하우강 파마(Hau Giang Pharmaceutical)·트라파코(Trafaco) 같은 국내 제약 계열이 전국 독립 약국 유통망과 저렴한 가격으로 지방 소비자를 잡고 있다.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소비자들도 점점 "가격이 아닌 신뢰"를 찾기 시작했다. 베트남 식품의약품(VFA)의 규제 강화로 위조품·허위 성분 제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에서 소규모 국내 브랜드들이 타격을 받았다. 살아남은 국내 기업들은 두 방향으로 반격하고 있다. 하나는 전통 약초 기반의 문화적 정체성이다. 베트남 소비자의 뿌리 깊은 한의학·약초 신뢰를 활용하는 전통 한방 보조식품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가 외국 브랜드보다 우위에 있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스피드다. 틱톡스에서 빠르게 트렌드를 읽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국내 신생 온라인 브랜드들이 Z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③ 채널이 전쟁터다 - 틱톡숍·약국·마트의 삼각 경쟁

2026년 베트남 웰니스 브랜드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채널이다. Asia Pro Distribution이 선언했다.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채널은 병원도 약국도 아니다. 35세 미만 베트남 소비자들이 패키지 문구보다 신뢰하는 크리에이터 콘텐츠 기반의 틱톡숍이다." 이 분석이 2026년 브랜드 전략의 전제가 됐다. 약국 채널(롱쩌우·파마시티)은 외국 브랜드의 신뢰도 확보 핵심 거점으로, 틱톡숍은 빠른 매출 창출 채널로, 쇼피몰은 정품 인증과 재구매 기반으로 각자의 역할이 분리됐다. 외국 브랜드가 약국을 선점하고 국내 신생 브랜드가 틱톡을 달리는 이 분리가 2026년 채널 전쟁의 구도다.

★ 편집부 평가

베트남 웰니스 브랜드 전쟁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70%라는 국내 점유율은 수성 중이지만 도시 중산층 신뢰도에서는 외국 브랜드가 앞서고 있다. 2025년 스캔들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규모 국내 브랜드가 퇴출되고 살아남은 브랜드들이 더 강해지는 재편이 진행 중이다. 외국 브랜드에는 채널 설계와 현지화가, 국내 브랜드에는 품질 인증과 프리미엄 전환이 각각의 과제다. 이 전쟁의 최후 승자는 "가격과 신뢰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브랜드일 것이다.

▶ 베트남 웰니스·건강보조식품 브랜드 경쟁 구도 (2026년)

구분	대표 브랜드	강점	약점·한계	주력 채널
외국 - 호주	블랙모어스 (Blackmores) 스위스(Swisse)	TGA 인증·천연 성분 베트남 2024년 호주 달러 8,600만 (세계 2위 수입국) 3:1 도시 신뢰도 우위	프리미엄 가격 지방 도시 접근 어려움	롱쩌우·파마시티 쇼피몰·틱톡숍
외국 - 한국	정관장 KGC 고려 홍삼	6년근 홍삼 전통 K-문화 신뢰도 연계 선물 세트 문화 결합	선물 시즌 의존 일상 소비 전환 미완 위조품 문제	롯데마트·이온 한인 마트·쇼피
외국 - 독일·미국	도펠헤르츠 (Doppelherz) 엔슈어(Abbott)·허벌라이프	유럽 품질 이미지 의료 채널 연계	인지도 상대적 낮음 유통망 제한적	약국·병원 채널
국내 - 제약 계열	하우강 파마 (Hau Giang) 트라파코 (Trafaco)	저렴한 가격 전국 유통망 전통 약초 기반 강점	프리미엄 인식 낮음 도시 젊은 소비자 이탈	독립 약국 지방 도시
국내 - 식품 계열	비나밀크 (Vinamilk) 누티푸드 (Nutifood)	대규모 유통망 기존 브랜드 신뢰도 학교·기관 채널	핵심 웰니스 이미지 약함·보조식품 전문성 부족	마트·슈퍼 학교 급식
국내 - 신생 디지털	비타민박스 (VitaminBox) 온라인 전문 브랜드 다수	틱톡·쇼피 맞춤형 빠른 트렌드 반응 저가 진입	제품 신뢰도 검증 부족 위조품 오인 위험	틱톡숍·쇼피 페이스북

① 외국 브랜드가 이기고 있는 곳 - 신뢰와 채널

NutraIngredients 2026년 1월 보고서가 확인한 숫자가 이 판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베트남은 2024년 호주 건강보조식품 세계 2위 수입국이 됐다. 호주 달러 8,600만(\$5,750만)어치를 수입해 뉴질랜드·한국·태국을 앞질렀다. 블랙모어스와 스위스가 이 성장을 이끌었다. 외국 브랜드가 도시 소비자들에게 3대 1의 신뢰도 우위를 가진 이유는 구체적이다. TGA(호주 치료용품 행정청)·FDA·CE 등 국제 인증

[출처: NutraIngredients "Vietnam supplement market counterfeits" (2026.01.14) • Asia Pro Distribution "Vietnam Health Supplement Distribution 2026" (2026.06.17) • Vietnam Briefing "Vietnam Health Supplement Market" • Chameleon Pharma "Vietnam Dietary Supplements Market" (2025.07.29) • Complementary Medicines Australia Industry Snapshot (2024) • Grand View Research SEA Dietary Supplements Competitive Analysis • Vietnam Association of Functional Foods (VAFF) 2025 연말 보고]

'HQ1/HQ2헤리티지 관광열차' 가 바꾸는 중부 베트남 2개의 유네스코 유산 철도로 잇다 후에와 풍냐케방 그리고 그 사이의 땅

8월 28일 동호이역. VNR(베트남 국철)이 버튼을 눌렀다. "풍냐-후에 고도: 원더스로의 여정 · 세계유산지구" 테마를 내건 HQ1/HQ2 편성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9월 2일 독립기념일에는 공식 운행을 선언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에 황성 복합지구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풍냐케방 국립공원을 190킬로미터 철도로 연결한 이 열차가 중부 베트남 관광 지형과 그 주변 부동산에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지를 분석한다.



▶ HQ1/HQ2 후에-풍냐 헤리티지 열차 핵심 제원 (VNR · 베트남 공식 자료)

항목	내용
노선명	풍냐-후에 고도: 원더스로의 여정·세계유산지구 (Phong Nha - Hue Ancient Capital: World Heritage Journey)
정식운행개시	2026년 8월 28일 발대식(동호이역) / 9월 2일 독립기념일 공식 운행
운행 구간	후에역 ↔ 토록역(풍냐케방 입구) 총 190km / 경유: 동하(Dong Ha)·미짱(My Trach)·동호이(Dong Hoi)
시간표	HQ2: 후에 07:15 출발 → 토록 11:55 도착 (4시간 40분) HQ1: 토록 13:15 출발 → 후에 17:25 도착
편성	8량 304명 정원 360도 회전 소프트시트 5량(56명/량)·VIP 24석 1량 커뮤니티 1량(민속공연·지역음식·OCOP 제품)·엔터테인먼트 1량 (영화·마사지·아오자이 포토)
요금	정상 VND 21만~38만동(약 1만1,500~2만800원) 출시 할인(8.29~9.5): 50% 할인 / 연말까지 추가 할인
정류장별 테마	후에: 문화유산 / 동하: 평화 / 마이짱: 역사 / 동호이: 해변관광 / 토록: 자연유산 관문
연계 유산	후에 황성 복합지구(UNESCO 세계문화유산 1993) 풍냐케방 국립공원(UNESCO 세계자연유산 2003·2015 확대) 짱찌 고성·빈목 터널·히엔르엉-벤하이 유적

① 이 열차가 만드는 것 - 190km를 연결한다는 뜻

지금까지 후에와 풍냐케방은 "가기 불편한 관계"였다. 다낭에서 차를 렌트하거나 후에에서 버스를 타면 4~5시간이 걸렸다. 고속버스는 있지만 경치도 없고 불편했다. 항공편은 다낭-동호이 노선이 있지만 요금이 높았다. 이 두 유네스코 유산지구를 동시에 여행하는 관광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

HQ1/HQ2는 이 구조를 바꾼다. 후에에서 오전 7시 15분에 출발해 오전 11시 55분에 토록(풍냐케방 입구)에 도착한다. 풍냐케방을 관광한 후 다음날 오후 1시 15분 토록역에서 후에 시로 돌아올 수 있다. 두 유산을 경험하는 여정이 처음 생긴 것이다. 두 유네스코 관광지가 열차 자체의 목적지라는 점이다. "모바일 목적지(mobile destination)"라고 표현한 이 열차는 360도 회전 시트에서 중부 해안 경치를 즐기고, 커뮤니티 칸에서 지역 음식을 먹고, 엔터테인먼트 칸에서 영화를 보고 마사지를 받는다. 4시간 40분이 단순 이동이 아니라 경험이 된다.

② 관광 발전 평가 - 후에와 풍냐케방 각각 무엇이 달라지나

후에의 가장 큰 과제는 관광객 "통과"를 "체류"로 바꾸는 것이었다. 다낭-호이안 코스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후에를 당일치기로 거쳐 가는 패턴이 고착돼 있었다. 항공·농묘·항강을 하루에 보고 다음 날 다낭으로 이동하는 코스다. HQ1/HQ2헤리티지 관광열차가 생기면 후에를 "중부 여행의 거점"으로 재 포지셔닝할 수 있다. 후에에서 체류하며 아침 열차로 풍냐케방을 관광하고 후에로 돌아오는 코스가 가능해진다. 숙박·식음료·투어 소비가 후에에서 추가되는 효과다.

풍냐케방은 접근의 불편한 문제가 있었다. 접근성이 너무 낮아 방문자 수를 늘리기 어려웠다. 국제 여행자들이 풍냐케방을 포기하고 다낭·호이안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곳까지 어떻게 가나"였다. 열차가 이 장벽을 낮춘다. 후에에서 직행으로 풍냐케방까지 이동이 가능해지면 베트남 중부 여행의 지형이 바뀌게 된다. 천국동굴(파라다이스 케이브)·풍냐 동굴·다크 케이브는 당일 반일 투어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손등을 경험하지 않아도 풍냐케방의 매력을 맛볼 수 있다.

③ 부동산 영향 - 어디가, 얼마나, 언제

철도 인프라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가 증명한다. 단 그 효과는 즉각적이기보다 점진적이며 노선별로 차별화된다. HQ1/HQ2헤리티지 관광열차의 경우 다음 지역들에 단계적 영향이 예상된다.

동호이(Dong Hoi)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번 열차의 발대식이 동호이역에서 열린 것 자체가 이곳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토록이 종착역이자 풍냐케방에 가장 가까운 곳이나 관광 인프라(호텔, 음식점, 차량)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호이에 머무를 것이다. 차량으로 토록에서 풍냐케방까지 약 20~30분 소요되는 반면 동호이에서 풍냐케방까지는 약 40~50분 소요된다. 동호이는 관광의 관문 지역으로 호텔·숙박·레스토랑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동호이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후에나 다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열차 운행으로 관광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면 소규모 호텔·게스트하우스·서비스업 부동산의 실수요가 먼저 반응할 수 있다.

후에서는 체류 관광객 증가가 핵심 변수다. 호텔 객실 점유율과 평균 숙박 단가가 올라가면 호텔 자산 가치와 서비스 업종 상가 임대료가 함께 움직인다. 후에는 2024년 이미 직할시로 승격됐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후에 부동산에 구조적 상승 동력이 더해질 수 있다. 풍냐마을과 토록역 인근은 에코 숙박·홈스테이·로컬 투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단 개발이 과도해지면 풍냐의 핵심 가치인 자연성이 훼손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 편집부 평가

HQ1/HQ2헤리티지 관광열차는 단순한 열차가 아니다. 중부 베트남 관광 지형의 재편을 촉발하는 촉매다. 유네스코 유산 두 지점을 연결하는 여정이 중부 베트남을 동남아 관광 지도에서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후에의 베트남 최고 문화 유산과 풍냐케방의 베트남 최고 자연 보물이 하나의 코스로 연결되는 시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동호이, · 후에 체류 숙박 · 서비스 업종의 실수요 기반 변화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투기적 기대보다 실수요 흐름을 보는 것이 합리적 접근이다.

[출처: Nhân Dân "Tourist train linking Phong Nha and Hue launched" (2026.08.28) · VietnamPlus "Hue-Phong Nha tourist train begin service September" (2026.07) · Vietnam.vn "HQ1/HQ2 고품질 철도관광" · DTI News "Hue-Phong Nha tourist train launch September" (2026.07.31) · Vietnam.vn "Route development Hue-Phong Nha" · VietnamTimes "Heritage train Hue-Phong Nha launched" (2026.09.02) · Nhân Dân "Journey of Wonders Railway" (2026.08.17)]



중부의 도전 - 다낭이 키우는 이공계 인재

DUT, • 두이탄 대학, VNUK 영국 학위, 세 대학의 다른 방식 이공계 교육

다낭은 베트남 3대 도시이지만 이공계 교육에서는 오랫동안 하노이 • 호찌민의 그늘 아래 있었다. 삼성 • LG • 인텔이 하노이 • 호찌민에 집중하는 동안 다낭은 관광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런데 지금 다낭의 이공계 교육이 조용히 세계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 두이탄대(DTU)가 QS 기준 컴퓨터사이언스 세계 301~350위에 오르고, 사이버보안팀이 CTF 세계 41위를 기록했다. 다낭에서 IT 인재를 채용하거나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 할 세 개 대학을 정리한다.

▶ 다낭 이공계 3대학 비교 (2026년 기준)

대학	설립·특성	랭킹	핵심 강점	한국기업 채용 적합 분야
DUT (다낭 과 기대·백 과)	1975년·공립 UD시스템 핵심 중부 최대 이공계	UD시스템 QS 아시아 439위 UD전체 QS 세 계 1401+ 중부 공학 1위	토목·건설·전기·기 계·화공 환경공학·IT·자 동화 인프라 전문인력 강점	건설·에너지· 환경 제조 현장 엔 지니어 다낭 인프라 프로젝트
두이탄대 (DTU) (Duy Tan University)	1994년·사립 다낭 최대 사립 QS 베트남 1위	QS 세계 482 위(2026) CS&IS 세계 301~350위 THE 세계 601 위	사이버보안 세계 41위(CTF) ABET 인증 네트워 크공학 카네기멜런 커리 클 IT AI·소프트웨어·핀 테크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AI·소프트웨 어개발 영어 능통자 비율 높음
VNUK (비엠티 아인UK국제 대)	2014년·국제 파 트너십 영국 코번트리대 협력 베트남 최초 영국 식 대학	QS World 651~700위 (코번트리대 기준) ABET 인증 일 부 전공	영국 학위 동시 취 득 컴퓨터공학·데이 터사이언스 비즈니스+IT 융합 100% 영어 교육	외국계 기 업 글로벌 포 지션 영어 소통 최 우선 포지션 데이터분 석·IT컨설팅



이더보안 생태계에서 DTU가 실질적 인재 공급처라는 의미다. IT 교육에서는 카네기멜런대(CMU)의 커리큘럼 프레임워크를 직수입해 사용한다. 네트워크공학 전공은 미국 ABET(공학 인증기관) 인증을 받았다. QS 주제별 랭킹에서 컴퓨터사이언스·정보시스템이 세계 301~350위에 올라 있다.

DTU 졸업생의 또 다른 특징은 영어 소통 능력이다. 국제화에 집중한 결과 DTU 학생들의 평균 영어 실력이 베트남 공립 이공계 대학보다 높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외국계 IT 기업들이 다낭에서 채용할 때 DTU를 우선하는 이유 중 하나다.

① DUT(다낭 과기대·백과) - 중부 인프라 엔지니어의 원천



1975년 설립된 공립 DUT(Da N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베트남 중부의 이공계 교육을 50년간 책임진 기관이다. 다낭대학교(DU)의 10개 산하 기관 중 공학·기술 담당 핵심이다. 하노이의 HUST, 호찌민의 HCMUT와 같은 계보에서 "중부의 백과"로 불린다. 강점은 토목·건설·전기·기계·화공·환경공학이다. 다낭 신도시 개발·광남 산업단지·중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DUT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DUT가 한국 기업들에게 갖는 실용적 의미가 있다. 다낭·광남에 진출한 한국 건설·에너지·환경 기업들의 현지 채용 파트너다. LG이노텍·두산 협력사들이 다낭 권역 제조 인력을 채용할 때 DUT가 1순위다. 연간 800편 이상의 국제 논문을 발표하는 UD 시스템의 연구 역량도 DUT가 뒷받침한다. 산학협력처(HTKT) 채널을 통해 기업 채용 파트너십을 공식화할 수 있으며 학기 중 캡스톤 프로젝트 협력이 채용 전 인재 평가 방법으로 활용된다.

② 두이탄대(DTU) - 세계가 인정한 사이버보안과 AI

두이탄대(Duy Tan University)는 베트남 이공계 교육의 이단아다. 1994년 사립으로 출발해 지금은 QS 세계 랭킹에서 베트남 1위(482위)에 올랐다. 하노이의 HUST나 호찌민의 HCMUT보다 순위가 높다. 비결은 집중과 국제화다.

사이버보안이 DTU의 가장 빛나는 성과다. ISITDTU 정보보안팀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CTF(Capture The Flag) 타임 랭킹에서 베트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세계 41위를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대회 성과가 아니다. 베트남 사

③ VNUK - 영국 학위를 다낭에서 받는다



VNUK(Viet Nam - United Kingdom University, 비엠티아인UK 국제대)는 베트남 교육 지형에서 완전히 다른 실험이다. 2014년 영국 코번트리대(Coventry University)와 베트남 정부의 협력으로 설립된 이 대학은 베트남 최초의 영국식 대학이다. 코번트리대 QS 기준 세계 651~700위 수준이며 VNUK는 이 대학의 학위를 현지에서 취득할 수 있다.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된다. 컴퓨터공학·데이터사이언스·비즈니스 IT 융합 전공이 핵심이다. 졸업생은 베트남 학위와 영국 코번트리대 학위를 동시에 취득한다. 한국 기업들에게 VNUK가 갖는 실용적 의미는 분명하다. 외국계 기업 글로벌 포지션에서 영어 소통이 최우선인 역할 - IT 컨설팅·데이터분석·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에 VNUK 졸업생이 가장 적합하다. 다낭이 디지털 도시·스마트시티로 발전하는 방향에서 VNUK 인재들이 핵심 디지털 행정 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 편집부 평가

다낭 이공계 3대학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DUT는 현장 엔지니어를, DTU는 글로벌 IT · 보안 인재를, VNUK는 영어 기반 테크 인재를 각각 공급한다. 한국 기업들은 채용 포지션의 성격에 따라 이 세 학교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 다낭이 하노이 • 호찌민의 이공계 인재 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다는 것도 전략적 기회다. 조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업이 인재 확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출처: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6 (DTU 482위·UD 1401+위) •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6 (DTU 601위) • TopUniversities UD-QS 아시아 439위 • DTU 공식(duytan.edu.vn) ISITDTU 보안팀 CTF 세계 41위 • DTU ABET 네트워크공학 인증 • Wikipedia DUT(en.dut.udn.vn) 1975년 설립 • VNUK 공식(vnuk.edu.vn) 코번트리대 파트너십 • US News "Best Global Universities Vietnam #9 UD" • FindingUni "Top CS Universities Vietnam" (2026.07)]

HWASEUNG Enterprise

화승엔터프라이즈

당신이 아는 화승 당신이 몰랐던 화승

하나를 하고도 열을 드러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열을 하고도 하나를 밝히기 어려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의 부족함을 연구하고
길을 닦기보다는 속과 뒤, 그리고 신뢰를 다져온 화승그룹

진심이 있는 기술은 깊이가 다릅니다
역사가 있는 혁신은 내일이 다릅니다

교민과 항상 함께하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기업

HWASEUNG
Enterprise

연남동에서 시작해 한국 23개점 - 콩까페가 보여준 것과 숨긴 것

베트남 브랜드 최초 한국 진출 성공 사례, 구조적 한계와 다음 주자의 가능성은



2018년 7월 30일, 서울 연남동 골목에 낯선 카페가 문을 열었다. 녹슨 철제 가구, 사회주의 포스터 감성, 베트남어 사인, 그리고 메뉴에 코코넛 커피 하나. 베트남 카페 브랜드 콩까페(Cộng Cà Phê)의 세계 첫 해외 직영점이었다. 한국 소비자들은 낯설고 신기한 이 공간에 줄을 섰다. 8년이 지난 2026년 지금, 콩까페는 한국에 2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말레이시아·대만·캐나다로도 진출했다. 성공인가. 답하기 전에 숫자 뒤를 봐야 한다.

▶ 콩까페 글로벌 현황 및 베트남 주요 카페 브랜드 해외 진출 비교

브랜드	국내 점포	해외 진출 현황	한국 진출	특징
콩까페 (Cộng Cà Phê)	베트남 66개 (2025 기준)	한국 23개·말레이시아 4개·대만 1개·캐나다·필리핀 1개 총 해외 29개	2018년 7월 연남동 세계 첫 해외점 한국=최대 해외 시장	사회주의 복고 감성·코코넛 커피 2007년 하노이 창업 창업자: 전직 퍼포먼스 아티스트
하이랜드즈 커피 (Highlands Coffee)	베트남 600개+ (압도적 1위)	필리핀 39개(2011년~) 홍콩·미국 일부	미진출	VN 1위 체인·자국 대중 브랜드 국제화보다 국내 확장 집중
더 커피 하우스 (The Coffee House)	베트남 150개+	미진출	미진출	인테리어·품질 중간가 2014년 창업·VC 투자 유치
쥬엔 레전드 (Trung Nguyen Legend)	베트남+해외 소수	미국·일본 등 산발적 로스터리 형태	미진출	전설 커피 집중·프리미엄 원두 원두 수출 중심
푹롱 (Phuc Long)	베트남 100개+	미국·호주 검토 중 본격 진출 전	미진출	차+커피 복합·밀티차(MilkTea) 강점 마산그룹 산하

① 콩까페 브랜드 분석 - 무엇으로 이겼는가

콩까페의 핵심 자산은 제품이 아니라 공간이다. 2007년 하노이에서 전직 퍼포먼스 아티스트 린 중(Linh Dung)이 만든 이 카페는 베트남 사회주의 시대의 감성을 인테리어로 재해석했다. 낡은 철제 가구·붉은 벽·군복 모티프·흑백 포스터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든다. "오래됐지만 힙하다(Vintage but Hip)"는 공간 언어다. 이것이 한국 MZ세대에게 먹혔다. 연남동·홍대·이태원처럼 감성 소비에 민감한 지역의 입지 선택이 이 감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코코넛 커피(Cà Phê Cốt Dừa)라는 한국에 없는 명확한 시그니처 메뉴도 차별화 요소였다. 코코넛 밀크를 얹은 연유 커피는 단번에 "베트남에서 마셨던 그 맛"이라는 추억과 연결됐다.

② 한국 진출 평가 - 23개점의 빛과 그림자

한국 23개점은 수치로는 성공이다. 베트남 카페 브랜드의 단일 해외 시장 최대 점포 수다. 그러나 이 숫자를 들여다보면 한계가 보인다. 23개 중 상당수가 한국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소수다. 가맹점 품질 관리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 한국 소비자들의 반복적 지적이다. 처음 연남동에서 경험한 "베트남 감성"이 다른 지점에서는 희석됐다는 평이 있다. 메뉴 다양성도 한계다. 코코넛 커피를 중심으로 한 메뉴가 초기 신선함을 줬지만 재방문 유인이 약하다. 한국 카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 중 하나다. 스타벅스·매가커피·컴포즈·빽다방 같은 강자들 사이에서 "베트남 감성"만으로 지속적인 차별화를 유지하는 것이 구조적 과제다.

③ 다른 베트남 브랜드의 한국 진출 성공 가능성

콩까페 이후 베트남 카페 브랜드들이 한국 진출을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공간 감성"인가 "제품 실력"인가.

푹롱(Phuc Long)이 가장 주목할 후보다. 베트남에서 차(茶)와 커피를 함께 파는 독특한 포지셔닝을 가졌다. 특히 밀크티 계열이 강하다. 마산그룹 산하로 편입되면서 자본력도 갖췄다. 한국 밀크티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고 "베트남 차 문화"라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콩까페보다 제품 다양성에서 유리하다. 단 마산의 해외 직접 운영 역량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쥬엔 레전드(Trung Nguyen Legend)는 베트남 커피 원두의 브랜드 파워가 강점이다. 스타벅스가 "리저브" 로스터리 모델로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했듯, 쥬엔은 "베트남 스페셜티 원두"의 스토리텔링으로 한국 스페셜티 시장을 파고들 수 있다. 그러나 체인 카페보다 원두 프리미엄 모델에 가까워 대중 확장성이 낮다.

결국 한국에서 성공할 다음 베트남 카페 브랜드의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콩까페처럼 명확한 공간 서사(Space Narrative)가 있거나, 스페셜티처럼 명확한 제품 실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직영 운영 비율을 높여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국 진출 직후부터 SNS와 틱톡 콘텐츠로 바이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MZ세대는 첫 방문 경험을 공유하는 소비자들이다. 그 첫 경험이 완벽하게 설계돼야 한다.

★ 편집부 평가

콩까페의 한국 23개점은 베트남 카페 브랜드가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23개점이 수익성 있게 운영되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베트남 감성"이라는 초기 흥미가 지속 가능한 재방문과 매출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다음 베트남 브랜드에게 콩까페의 경험은 교과서인 동시에 경고다. 감성으로 문을 열되, 제품으로 손님을 붙잡아야 한다.

[출처: Vietnam.vn "KGC Jung Kwan Jang Dam Da launch Vietnam" (2026.07.05) • NutraIngredients-Asia "KGC ASEAN strategy" (2024.08) • KGC 홍삼 월드맵 데이터 (2022) • Cimigo Vietnam Consumer Trends 2026 • Long Chau·PharmaCITY 유통 채널 현황 • Q&Me Vietnam Health Supplement Survey 2026]



지도 밖을 여행한다 - 베트남 Z세대가 다시 그리는 관광 지도

하롱베이 · 다낭 OUT, 하장 · 따수아 · 무강짜이 IN, 경험이 목적지보다 먼저인 세대



베트남 관광청이 수십 년간 밀어온 공식 관광지 목록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하장 루프로드(Ha Giang Loop)를 오토바이로 달리고, 따수아(Ta Xua) 정상에서 구름 바다를 보고, 무강짜이(Mu Cang Chai) 계단식 논 사이에서 하룻밤을 자는 것이 지금 베트남 Z세대의 버킷리스트다. 인스타그램에 수천 번 올라온 하롱베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자신만의 사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됐다. 이것이 베트남 Z세대 경험 여행의 핵심이다.

▶ 베트남 Z세대 여행 트렌드 핵심 데이터 (2025~2026)

항목	수치 · 내용	출처
개인화 여정 선호	65~70%가 1박2일~4박5일 맞춤형 여정 선택	VietnamPlus 2025.08.24
비수기 · 오지여행	62% 비수기 여행으로 비용 절감 49% 숨겨진 목적지 선택	Vietnam.vn 2026
체험 우선 예산 배분	91% 예산의 절반을 체험 활동에 숙박·항공보다 경험 우선	Klook Research 2025
원오브어카인드 경험 추구	69% 스카이다이빙·열기구·동굴 다이빙 등 일회성 특별 경험 원해	Booking.com 2025
어드벤처 관광 비중	베트남 어드벤처 관광객의 70%가 Z세대 — 시장 주도	Travel and Tour World 2025.08.25
여행 일정 패턴	81%가 연 최대 6회·1주 미만 짧은 여행 짧고 자주, 반복 가능한 여정	Vietnam.vn 설문 2026
관광업 Z세대 역할	관광업 구직자 78%가 Z세대 산업 소비자이자 인력의 주축	VITEA(베트남 관광교육협회)

① 경험이 목적지보다 먼저다 - Z세대 여행의 철학

이전 세대 여행자들은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를 나중에 생각했다. Z세대는 반대다.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그 경험이 가능한 장소를 찾는다.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다면 무이네 해변으로, 구름 바다 위 일출을 보고 싶다면 따수아로, 소수민족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면 하장 구릉지대의 홈스테이로 간다. 목적지가 아니라 경험이 여행의 출발점인 것이다. VietnamPlus는 이것을 "경험이 라이프스타일 가치의 기준이 됐다"고 표현했다. 경험은 SNS에서 공유되고 바이럴 된다. 자신만 아는 숨겨진 폭포, 해발 2,000m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의 사진이 팔로워들의 다음 여행 목적지를 만든다. 베트남 Z세대 어드벤처 관광객의 91%가 항공권보다 체험 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이 철학을 수치로 보여준다.



② 어디로 가는가 - 새로운 버킷리스트 목적지들

하장(Ha Giang)이 가장 상징적인 사례다. 10년 전까지 하장은 베트남 최북단의 오지였다. 지금은 매년 수십만 명의 Z세대가 오토바이를 빌려 하장 루프로드를 달린다. 말굽 형태의 협곡 동반 꽃피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틱톡에 바이럴 되면서 숨겨진 목적지가 하루아침에 뜨는 방식이다. 따수아(Ta Xua, 손라성)는 "구름 사냥(Cloud Hunting)"의 성지다. 해발 2,865m에서 구름이 허리 아래로 내려오는 새벽 장면을 찍으려고 젊은 여행자들이 전날 밤 트레킹을 시작한다. 무강짜이(Mu Cang Chai, 옌바이성)의 계단식 논은 황금 벼가 익어가는 9~10월에 전국 각지에서 Z세대가 몰려드는 시즌 목적지가 됐다. 닌빈과 쟁안은 카약·보트 탐험의 중심지로, 꼰다오(Con Dao) 섬은 스쿠버다이빙과 디지털 디톡스의 조합으로 Z세대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③ 워케이션과 DIY 여행 - 일과 여행의 경계가 사라진다

Z세대 경험 여행의 또 다른 얼굴이 워케이션(Workation)이다. 노트북과 와이파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이 세대는 달랏·호이안·무이네를 사무실로 만들었다. 달랏이 워케이션의 1번지로 떠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다. 1,500m 고원의 서늘한 기온, 시간당 분위기가 바뀌는 안개와 햇살,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스페셜티 카페 인프라, 그리고 호찌민·하노이 대비 30~40% 저렴한 숙박비다. 달랏 롱타인 공항 재개항(실제로는 달랏 리엔크영 공항·8.19 재개항)으로 접근성도 개선됐다. DIY 여행은 Z세대 여행의 또 다른 특징이다. 패키지 투어를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루트를 설계한다. 에어비앤비·클룩·트라벨로카를 조합해 숙박·투어·이동 수단을 각자 예약한다. 가이드 없이 현지인 홈스테이에서 밥을 먹고 오토바이를 빌려 직접 달린다. 이 과정 자체가 경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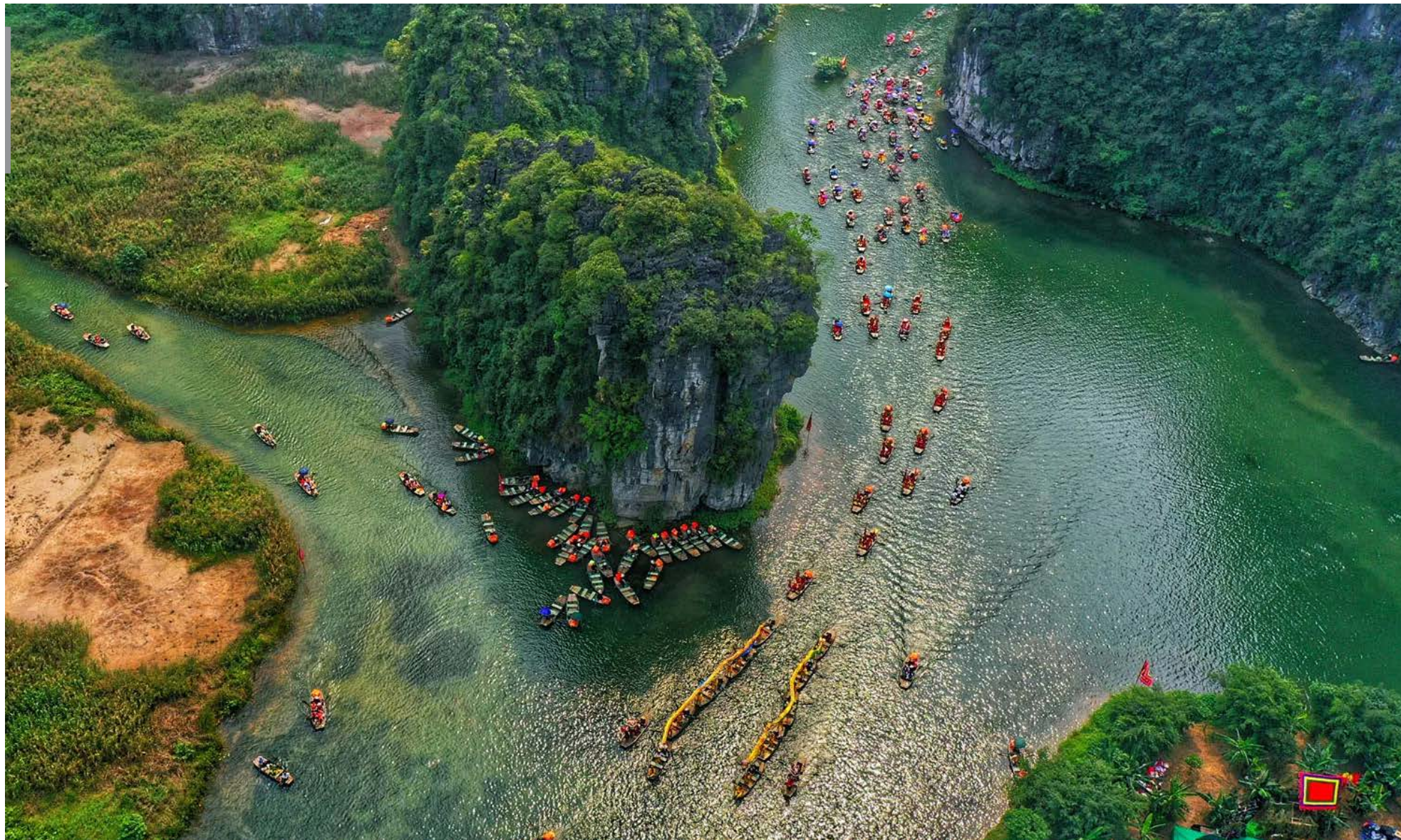
④ 한국 방문자 · 교민을 위한 시각

베트남을 여행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Z세대 경험 여행 코드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하장 루프는 이미 한국 유튜브·릴스에서 "베트남 필수 코스"로 굳어졌다. 호이안 야간 시장과 달랏 카페 투어가 20~30대 한국 여성 여행자들의 필수 동선이 됐다. 베트남 거주 한국 교민들에게도 워케이션 트렌드는 주목할 라이프스타일 변화다. 달랏·무이네에 1~2주씩 머물며 재충전하는 패턴이 호찌민·하노이 교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출처: VietnamPlus "Gen Z taking over Vietnam tourism scene" (2025.08.24) • Vietnam.vn "Gen Z travel trends prioritizing short trips" • VietnamNews "Focusing on saving Vietnamese love to travel" (2025) • Travel and Tour World "Gen Z Influence Adventure Tourism Vietnam" (2025.08.25) • ExoTrails "Gen Z travel trends Vietnam" (2025) • Booking.com Vietnam Gen Z Survey 2024 • Klook Research Travel Therapy Millennials Gen Z • Atlys "Gen Z Travel Trends Statistics" (2025) • Airbnb 2026 Travel Predictions • VITEA 관광교육협회 통계]

5일 연휴, 베트남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달랏의 야생화 · 닌빈의 고요한 수로 · 후에의 음악 페스티벌이 올해 9.2 연휴의 새로운 목적지로 떠올랐다



올해 9월 2일 독립기념일 연휴는 8월 29일(토)부터 9월 2일(화)까지 5일이다.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한 해 가장 긴 연휴 중 하나다. 아고다(Agoda)가 5월 1일~7월 31일 사이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2026년 국내 여행지 1위는 다낭이었다. 트라벨로카(Traveloka) SEA 인덱스는 하노이 · 호찌민 · 다낭을 예약 상위 5위 안에 올렸다. 그러나 실제 여행자들의 선택은 이 세 도시에만 머물지 않는다. 달랏의 야생화 · 닌빈의 고요한 수로 · 후에의 음악 페스티벌이 올해 9.2 연휴의 새로운 목적지로 떠올랐다.

① 다낭 - 연속 1위의 이유가 있다



아고다 2026년 9.2 연휴 검색 데이터에서 다낭이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9월은 다낭의 건기 막바지로 해변 조건이 가장 좋은 시기다. 미케 해변(My Khe Beach)은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가 세계 6대 해변으로 선정한 곳이다. 바나힐(Ba Na Hills)은 1,400m 고지대라 연중 서늘하다. 연휴 기간 드래곤브릿지(Dragon Bridge)에서 화·토요일 밤 불과 물을 뿜는 쇼가 무료로 열린다. 다낭은 항공 접근성이 베트남 국내 최고 수준이며 호이안·미썬(Mi Son)이 차로 30분 거리라 연휴 일정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 2026년 9.2 연휴 베트남 국내 5대 관광지 비교 (Agoda·Traveloka·Vietnam.vn 통합)

관광지	검색 · 예약 순위	9월의 특징	추천 대상	핵심 체험
다낭 (Da Nang)	Agoda 국내 1위 Traveloka 상위 5위	건기 막바지·해변 최적 바나힐 서늘·야간 드래곤 브릿지	가족·친구·커플 전 연령	미케 해변·마블산 바나힐·드래곤브릿지 불꽃축제·야시장
하노이 (Hà Nội)	Traveloka 상위 5위 독립기념일 행사 중심지	9.2 바딘 광장 기념식 A81 시리즈 문화행사 아침 햇살이 가장 부드러운 계절	역사·문화 관심층 국내외 여행자	바딘 광장 기념식 호안끼엠 호수·구시가지 에그커피·문묘
달랏 (Đà Lạt)	국내상위5위 커플 · 가족 최선호	야생 해바라기 시즌 절정 안개·서늘한 고원 기후 라온트리 꽃축제 개최	커플·가족 웰니스 여행자	야생 해바라기 발 달랏 꽃시장·폭포 고원 커피·달랏 딸기
닌빈 (Ninh Binh)	국내 상위 5위 조용한 연휴 선호층 집중	몬순 끝물·논밭 초록 절정 보트 위 카스트 풍경 인파 적어 고요한 체험	조용한 여행자 Z세대 감성 여행	짱안 보트 투어 항무아 전망대 바이딘 사원·케호 동굴
후에 (Huế)	연휴 특별 이벤트 도시 람동 국제방문 +15% 연계 지역	후에 원더버스 뮤직페스트 8.30~9.1 개최 황릉 · 황궁 연계	음악·문화 관심층 역사 여행자	뮤직페스트·황궁 향강 유람·궁중 요리 티엔무 사원



② 하노이 - 독립기념일의 원점



9월 2일 하노이는 베트남 전체가 하나로 모이는 날이다. 바딘 광장(Ba Dinh Square)에서 매일 새벽 6시 국기 게양식이 열리며 독립기념일 당일에는 군악대와 기념행사가 더해진다. 올해는 A81 시리즈(81주년)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구시가지 전역에서 열린다. 호안끼엠 호수 주변 보행자 거리가 연휴 기간 내내 가득 차며 구시가지 36거리가 축제 분위기로 바뀐다. 하노이는 9월에 가장 아름답다. 선선해진 바람, 느티나무 잎이 조금씩 물드는 초가를 풍경이 도시를 감싼다. 에그커피 한 잔, 호안끼엠 산책, 문묘 방문이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노이만의 독립기념일 경험이다.

③ 달랏 - 야생 해바라기와 안개의 계절



9월 달랏은 야생 해바라기(dã quỳ)가 피기 직전이다. 정확히 9월 말~10월이 절정이지만 9.2 연휴는 첫 꽃봉오리들을 만날 수 있는 시점이다. 1,500m 고원의 서늘한 기온이 호찌민 더위를 피해 온 여행자들에게 천연 피서지가 된다. 아고다 데이터에서 달랏은 람동성 전체 기준 국제 방문객이 올해 7개월 동안 90만명(+15%)을 기록했다. 이것은 국내 여행자 수요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랏 꽃시장·빈 페우 호수·크레이지하우스·다탄라 폭포·달랏 기차역이 연휴 5일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달랏 아라비카 커피를 현지에서 마시는 경험은 커피 여행의 연장이기도 하다.

④ 닌빈 - 연휴의 고요를 찾는 사람들

닌빈은 베트남 "육지의 하롱베이"다. 쩡안(Trang An)의 작은 보트 위에서 석회암 봉우리들 사이를 노 저어 지나가는 경험은 베트남에서 가장 조용한 여행의 하나다. 9월은 문순이 끝나가는 시점으로 눈발이 가장 초록한 때다. 항무아(Hang Mua) 정상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360도 풍경은 SNS에서 꾸준히 바이럴된다. 바이딘(Bai Dinh) 사원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불교 사원 중 하나다. 하노이에서 차로 2시간으로 당일치기도 가능하고 부티크 리조트에서 1박2일로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



⑤ 후에 - 올해 연휴 깜짝 스타



올해 후에가 9.2 연휴 목적지로 새롭게 떠오른 이유가 있다. 8월 30일~9월 1일 "후에 원더버스 뮤직페스트 2026"이 열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황성(Citadel)을 배경으로 현대 음악과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이 행사가 Z세대와 밀레니얼 여행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후에는 베트남 음식 문화의 원천이기도 하다. 분보후에(Bún Bò Huế)·반코아이(Bánh Khoái)·궁중 요리 코스가 달랏·다낭과 또 다른 식도락 여행을 만든다. 황룡 방문·향강 유람·티엔무 사원을 연결하면 연휴 2박3일 일정이 완성된다.

국내 관광 잠재력 평가 - 베트남 내수 여행의 구조적 성장

베트남 국내 관광은 규모와 성숙도 면에서 동남아 최고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트라벨로카 SEA 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9.2 연휴 예약에서 베트남은 국내 여행지를 해외보다 높은 비율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숙박·항공·투어 인프라가 해외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다. 아고다 국가담당자 부 응옥 람은 "베트남 여행자들이 해안·고원·도시를 고루 탐색하는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단순히 바다를 찾는 것을 넘어 목적지별 특성을 분별하는 성숙한 소비자가 늘어났다는 신호다. 베트남 관광부의 목표는 단순히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 길어지고 지역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는 여행"을 만드는 것이다. 람동 국제 방문객 +15%(7개월)·달랏 관광 활성화가 이 방향의 실증이다.

[출처: VietnamPlus "Agoda 2026 National Day destinations" (2026.08.25) • Vietnam.vn "Vietnamese tourists search Da Nang Bangkok" (2026.08.26) • VnExpress "Where Vietnamese travelers are heading Sept 2" (2026.08.16) • Vietnam.vn "Top 10 destinations September 2 2025" • Asia Pioneer Travel "Vietnam Independence Day 2026 Travel Guide" • Halong Bay Lux Cruises "National Day 2026" • Lam Dong Tourism 7-month statistics 2026]



ONE SERVICE

베트남 진출, 원스톱 솔루션 원서비스로 빠르고 안전하게!

법인 설립부터 HR, 세무·회계까지 한 번에 해결 !

- ✓ 법인 설립 & 비즈니스 컨설팅
 - 외투법인, 현지법인, 외투전환 설립
 - 사업자 등록, 법인 도장, 초기 세금 신고
- ✓ 세무·회계 관리
 - 월별 세금 신고 & 기장 대행
 - 연말 정산, 재무 보고서, 전자 세금계산서
- ✓ HR & 직원 관리 서비스
 - 직원 채용 & 급여 관리 (현지 & 한국어 가능 인력)
 - 노동허가서 & 사회보험, 아웃소싱 지원
- ✓ 비즈니스 컨설팅 & 행정 업무 대행
 - 공증, 번역 서비스 & 법률 준수 컨설팅
 - 공항 VIP 패스트트랙 (입국 \$18 / 출국 \$25)



원서비스는 다릅니다!

- ✓ 10년 이상의 베트남 법률·세무·HR 경험
- ✓ 한국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신속한 대응
- ✓ 투명한 비용, 믿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상담 및 문의

전 화: 08-3333-1004

이메일: simon@oneservice.group

주 소: 65 Dang Nhu Mai, Phuong Thanh
My Loi, Thanh pho Thu Duc, HCMC

카카오: ONESERVICE1

